

# 바이오·식품 중심지 도약 기회 잡았다

### 익산시, 정부 기획발전특구 선정... 익산 제3일반산업단 확장 부지 등 총 15만 평 규모 과격적 세제·규제 특례 지원·투자 촉진 보조금 비율 확대... 대규모 투자 효과 기대

익산시가 바이오·식품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확실한 기회를 잡았다.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날 이후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익산시가 기획발전특구로 선정됐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 약 27만㎡(8만평)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 부지 약 22만㎡(7만평)를 합해 49만㎡(15만평) 정도의 규모다.

기획발전특구는 속도감 있는 지방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정부가 나서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획발전특구 안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받을 수 없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과격적으로 적용된다. 특구 내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익산 기획발전특구의 경우 의약품과 건강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분야를

공략한다. 시는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획발전특구는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뿐 아니라 예정돼 있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지난 2월 국내 대장급 바이오 기업인 '레드진', '제이비케이랩(JBK LAB)'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두 기업은 생명공학에 의학·약학 분야가 응용된 레드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레드진'은 자체 기술로 인간과 반려견의 세포 기반 배양 적혈구를 개발한 바이오 기업이다. 유전자 교정과 줄기세포 배양기술로 인공혈액을 개발하고 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인간과 반려견 등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비케이랩'은 건강기능·보조식품, 의약품원료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바이오 분야 대표기업이다.

제이비케이랩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6만 6,000㎡ 부지에 2028년

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연계 상승효과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는 대학과 협력해 혁신융합대학원을 신설하고 의과대학자 양성, 첨단바이오 산업 맞춤형 특화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아직 부족한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실제 원광대학교는 '전북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산업 인재 양성 혁신모델 구축에 대한 실현 계획을 공유했다.

원광대는 △AI 신약 플랫폼 구축 △오가노이드 탱크 구축 △오가노이드 오가노어집 소부장 개발을 통해 정밀 의료가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익산시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몰려드는 미래 성장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의원들 열띤 시정질문 펼쳐

### 정영미·최재현·장경호·김미선·이중석·손진영 의원 시정 주요 현안 점검·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안 등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첫 질문에 나선 정영미 의원은 치킨로드 등 먹거리 사업을 연계한 식품거리 조성과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축산농가 지원 방안과 도시공원 민간특례공원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 예산 및 인력채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 개발 지연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도심 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제안하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으며, 해충민원 증가 추세에 따른 해충발생 데이터 구축 등 체계적인 방역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경호 의원은 치킨로드 입점 요건 완화, 금전적 유인책 활용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화폐 다이로움 수수료 절감 계획과 국비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창인동 청소년 통영금지 구역 정비와 홀로그램 지원 센터 거리 조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선 의원은 청년정책의 사업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신중년일자리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 그리고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못해 부실이 우려되는 익산시노인복지관 급식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석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익산시 도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디지털화 및 정보시스템,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세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손진영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이에 관한 시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계획인지 물었으며,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상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보건소, 6·25 전사자 가족 찾기 사업 추진

익산시 보건소는 74주기를 맞아 6·25참전용사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유전자 검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추진하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시작한 호국보훈 사업이다.

유가족 유전자 채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사자를 중심으로 친·외가 8촌까지만이며, 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검사실에 방문하면 된다.

1회 채취로 발굴된 유해와 이후에 발굴되는 유해의 DNA와 지속해서 비교분석을 진행하며 검사 기간은 10~12개월 가량 소요된다.

거동 불편, 생계 등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기동탐문단당이 직접 방문해 DNA 시료 채취를 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아동학대예방 '하이, 아이지원사업' 추진

군산시가 올해 7월부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아동학대 예방 활성화를 위한 '하이, 아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이, 아이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사후부터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까지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게는 현물, 돌봄서비스 자부담금 비용, 의료비, 검진비, 심리상담비, 환경개선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 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청년친화도시 군산' 선포... 5년간 4040억 투입

### 군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4년 시행계획' 수립... 청년 취업 5대 분야·71개 과제로 구성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21일 '2024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위원장인 강임준 시장을 필두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군산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2023년 5월 1일 구성됐다. 또한 2년 동안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군산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군산시 청년정책이 구현할 비전으로 '청년기움, 청년의 행복을 함께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군산'을 선포했다. 여기에 달성 목표 및 군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이 담긴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4년도 시행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직전 2개년(2022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난 21일 '2024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3년)에 걸쳐 청년실태조사 및 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관련 용역자료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했다.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그간

개발부서에서 추진해오던 단기간의 청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대적 변화와 청년 맞춤형 수요를 반영, 작성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군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총 5대 분야, 71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 군산시 청년 삶의 영역을 고려하여 △일자리(24개 과제), △주거(5개 과제), △교육(12개 과제), △복지·문화(19개 과제), △참여·권리(11개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5년간 4,040억3,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정책 분야는 군산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 문제와 직결되는 그 어떤 정책분야보다도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의 행복을 함께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군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의회, 제2기 예결위 일정 마무리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구)가 지난 20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9대 익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에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폈으며, 심사 결과 1조 8,33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정된 재원이 알차게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실질적인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편성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율러 "지난 1년 동안 각종 예산 및 결산 심사 등 익산시 재정건전 운영을 위해 소임을 다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